

제 4 강. 동서 교회의 분열 : 서방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

지난 주에, 로마 제국이 동서로 갈라지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대했던 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기가 전성기였고, 이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 제국의 수도를 동쪽인 비잔티움으로 옮겼던 이야기를 했죠.

그 수도를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로 정합니.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거대했던 로마 제국에 균열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은 분리되고 서로 다른 역사를 걷게 되죠.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분열되기 시작한 가장 큰 요인은 문화와 언어의 차이였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그만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죠.

동로마 제국은 ‘그리스어’를 중심으로 한 헬레니즘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리스어’는 언어 자체가 아주 사색적이고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언어예요. 풍부한 문학적 사상과 철학적 사상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문학이 아주 발달할 수 있었어요. 이런 문화 안에서 초대 그리스도교의 철학과 신학이 많이 정립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서로마 제국은 ‘라틴어’를 중심으로 한 문화였어요. 라틴어는 아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언어입니다.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그리스어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의 언어예요.

로마 제국은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군대 문화가 주를 이루었어요. 군대 문화에서는 규율과 명령 체계가 주를 이루는 아주 논리적이고,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언어가 쓰이죠. 라틴어가 바로 그렇습니다.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언어를 군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리스어와 라틴어는 사상과 이념 체계가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은 결국 서서히 분열이 시작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가 분리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가 완전히 공식적으로 갈라진 것은 1054 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언어와 문화의 극심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분열은 시작되고 있었어요.

원래 ‘가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진, 일치된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동방과 서방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특히, 서로마 제국이 476 년에 멸망한 후에, 서방 지역의 교회는 새로 유입된 게르만족과 이후 유럽을 통일한 프랑크 왕국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성장해 갑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교회가 발전합니다.

반면, 서로마 제국보다 천년이나 더 존속된 동로마 제국에서 교회는 국가 권력과 강력한 황제 권력의 통제를 받으면서 생존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안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초대 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논쟁은 “예수가 과연 누구냐”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 후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진짜 하느님의 아들이지, 아니면 그저 신을 닮은 인간이었는지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과연 예수님은 신이었는가? 아니면 사람이었는가? 반신 반인 이었는가? 신과 인간의 모습을 다 가지고 계셨다면, 어느 정도가 신이었고, 또 어느 정도가 인간이었던가? 이것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 그리고 ‘삼위 일체’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였던 그리스,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등지에서 이런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 됩니다.

그런데,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 사람들은 이런 논쟁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철학적인 논쟁들을 라틴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서방 지역과 동방 지역은 교리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서서히 동방과 서방의 교회가 이념과 사상에서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몇 가지 생깁니다. 이런 사건들로 결국 교회는 동서로 완전히 분열되고 맙니다.

그 결정적 요인이 된 첫번째 사건이 ‘필리오케’ 논쟁입니다. 라틴어인데, ‘아들로부터’라는 뜻이에요.

‘필리오케’라는 이 단어 하나로 동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단어 하나 때문에.

‘삼위 일체’ 논쟁이 한참이던 때,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에서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공의회는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다른 위격이지만, 완전히 일치를 이루는 한 분의 하느님”이라는 삼위 일체 교리를 확정합니다.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고, 성령은 성부로 부터 흘러나왔다”고 정의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원은 성부 하느님이시고, 성부로 부터 성자와 성령이 나온 것”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동방과 서방의 교회 대표들이 함께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서방 교회 대표들만 따로 모여서, 381년에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따로 만들게 되는데, 동서방 대표들이 함께 합의한 니케아 신경에다, 추가로 ‘필리오케’라는 단어 하나를 삽입 합니다.

‘아들로부터’라는 이 단어를 성령 앞에 추가하면서, “성령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온다”고 정의를 다시 내린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처음 동서방 교회가 함께 합의한 것은, “성령은 아버지에게서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따로 서방 교회에서, “성령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는 이 신경을 따로 몰래 서방 교회에서만 사용을 하게 되요.

이렇게 서방 교회가 따로 신경을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약 250년 정도 지나서, 이것이 동방 교회에 우연히 알려집니다. 이것을 동방 교회가 문제 삼는 거예요.

“왜? 함께 똑같은 신경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해 놓고, 서방 교회만 따로 신경을 만들어서 그동안 사용해 왔냐”는 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필리오케’ 논쟁이에요.

사실, 서방 교회에서 ‘성령은 아들로 부터도 나온다’는 문구를 삽입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서방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파’들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규정 짓기는 했는데, 이 아리우스파들이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방 교회에서는 아리우스파에 대항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경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고 예수님의 위격을 한층 격상시킨 겁니다.

이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우리가 지금 미사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리상 더 맞는 논리에요. 성령은 아버지로부터도 나오고, 그리고 아들로 부터도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한 복음 20 장 22 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을 부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성령은 아버지로부터도 나오고 아들로 부터도 나오는 것이 맞는 교리입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는 이 ‘필리오케’에 대한 논쟁을 벌입니다. “단어 하나를 가지고,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두번째, 동방과 서방 교회가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성화상’ 논쟁이었습니다. 성화(그림)와 성상(동상)에 대한 논쟁입니다. “성화와 성상을 사용해도 된다”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논쟁이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치열한 논쟁거리가 되요. 정말 별거 아닌 것으로 싸우고 갈라지고 난리가 납니다.

처음에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는 모두 성화와 성상을 사용했었죠. 그러다가 동로마 제국의 레오 3 세 황제가 725 년에 성화와 성상을 완전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한번은 레오 3 세 황제가 이슬람 사원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슬람 사원에는 그림이나 동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슬람교에서는 모든 그림이나 동상을 우상 숭배로 규정해서 사용을 절대 금합니다.

거기서 영감을 얻은 레오 3 세 황제는 동로마 제국의 모든 교회에 성화나 성상을 ‘우상숭배’라고 규정하고 완전히 금지시켜 버립니다.

이에 동방 교회는 물론 서방 교회도 많은 반발을 합니다. 동방 교회는 강력한 황제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어쩔수 없이 따라야했지만, 서방 교회는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내린 결정을 따를 의무가 없었죠. 이것이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의 큰 논쟁거리가 되죠.

서방 교회가 성화나 성상을 강조한 이유가 있었어요. 서방 지역은 게르만족이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이후, 많은 이민족들이 유입됩니다. 그리고, 북유럽 등지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견하죠.

새로 이민족들을 개종시키고 선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림이나 동상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서방 교회는 동방 교회에서 금지시킨 성화나 성상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후에, 동방 교회도 성화 사용은 허용합니다. 그래서, 동방 교회에는 성상 보다는 ‘이콘’이라고 부르는 성화가 더 많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는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면서 발전하게 되는데, 문제는, 동방 지역에 있는 서방 교회가 문제가 됩니다.

동방 지역에도 로마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서방 교회가 생겼겠죠. 동방 지역에 있는 서방 교회는 어느쪽 교리와 전례를 따라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방 교회에서는 우리 땅에 있으니 서방 교회라고 해도, 동방의 교리를 따르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것이 결국 외교 문제가 되죠.

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오 9 세 교황이 훔베르트 추기경을 교황 특사로 동방 교회에 파견합니다. 이때 결정적으로 동서방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교황 특사인 훔베르트 추기경이 아주 고집이 세고, 타협을 모르는 인물이었다요. 타협을 하고 외교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라고 보냈더니, 가서 의견 충돌과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동방 교회와 논쟁을 벌이던 끝에 화가난 움베르토 추기경은 당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그자리에서 파문을 해버립니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움베르토 추기경과 그 수행원들을 보는 앞에서 모두 파문 해버려요. 서로가 서로를 동시에 파문해 버립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1054 년이예요.

이때부터 동서방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특히, 동방 교회에서는 서방 교회의 수장인 로마 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방 교회에서도 동방 교회의 대주교들과 총대주교를 인정하지 않죠.

더 심각한 사건이 후에 일어나는데, 1200 년부터 시작된 십자군 전쟁 때 었어요. 제 4 차 십자군 원정때, 서방 교회에서 파견한 십자군들이 동방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는 더이상 함께 하지 못하고 완전히 갈라서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서방 교회는 ‘로마 가톨릭’으로, 동방 교회는 ‘정교회’로 불리면서 완전히 갈라지고 전혀 다른 역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교리적으로도 조금 다르고, 전례나 복장도 아주 다릅니다. 정교회는 전례가 아주 장엄하고 엄숙하고 길어요. 중세 비잔틴 전례와 복장을 아직도 사용합니다. 사제들은 모두 수염을 길게 기르고, 검은 수단과 모자를 씁니다. 제의도 아주 화려하고 전통적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정교회 사제들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동방 정교회는 각 지역 문화와 잘 결합하면서, 각 나라와 문화에 따라 각기 다른 정교회로 발전해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등 다른 문화권에서 각자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모두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동방 정교회들은 서방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0 년대 소련의 해체 이후, 서서히 서방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가 완전히 갈라진지 약 900 년의 세월이 지나고, 1961 년에 시작된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요한 23 세 교황님이 동방 정교회의 총대주교와 대표들을 모두 공의회에 초대합니다.

여기서,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의 대표들이 서로에 대한 파문을 모두 철회하고, 분열 되었던 동서방 교회는 다시 화해하게 됩니다. 지금은 서로를 한 형제라고 부릅니다.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는 갈라진 형제입니다.

지금은 정교회 신자들과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서로의 교회에서 전례나 성사에 참여하는 것을 유효하게 인정을 합니다.

<요 약>

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분열되기 시작한 가장 큰 요인은 문화와 언어의 차이.

동로마 제국은 그리스어를 중심으로 한 헬레니즘 문화권. 그리스어는 아주 사색적이고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 풍부한 문학적 사상과 철학적 사상을 표현하는 언어.

서로마 제국은 라틴어를 중심으로 한 문화. 라틴어는 군대 문화에 적합한 언어로 아주 논리적이고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언어. 그리스어와 라틴어는 사상과 이념이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

그리스어를 사용한 동방에서는 ‘삼위 일체’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반면, 라틴어를 사용한 서방에서는 그러한 논쟁에 관심이 없었음.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이념과 교리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

서로마 제국 멸망한 후, 서방 지역의 교회는 새로 유입된 게르만족과 유럽을 통일한 프랑크 왕국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성장.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발전.

반면, 서로마 제국보다 천년이나 더 존속된 동로마 제국에서 교회는 국가 권력과 강력한 황제 권력의 통제를 받으면서 생존.

‘필리오케’ 논쟁 : 라틴어, ‘아들로부터’라는 뜻.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고, 성령은 성부로 부터만 흘러 나왔다(니케아 신경, 325 년)”는 동방 교회의 논리와 “성령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라틴어, 필리오케) 나왔다(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 381 년)”는 서방 교회의 논쟁.

서방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파에 대항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하는 의미로, 신경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도 나온다’는 구절 삽입.

‘성화상’ 논쟁 : “성화와 성상을 사용해도 된다”는 서방 교회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동방 교회의 논쟁.

서방 교회는 게르만족과 이민족들에게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화와 성상을 사용한 반면, 동방 교회는 성화와 성상은 우상 숭배라는 이유로 사용 금지.

동서방 교회의 교리와 이념의 차이로 인한 외교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서방 교회에서 파견된 훔베르트 추기경과 동방 교회의 대표인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서로를 파문하면서, 동서방 교회는 공식적으로 1054 년에 완전히 갈라짐.

제 4 차 십자군 원정때, 서방 교회에서 파견한 십자군이 동방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는 사건으로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는 완전히 갈라져 회복 불가.

서방 교회는 ‘로마 가톨릭’으로, 동방 교회는 ‘정교회’로 서로 다른 모습의 교회로 발전.

동방 정교회는 각 지역 문화와 잘 결합하면서, 각 나라와 문화에 따라 각기 다른 정교회로 발전 :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등

로마 가톨릭은 서유럽과 북유럽을 주무대로, 로마의 주교인 교황을 중심으로 하나되고 일치된 보편 교회로 발전.

동서방 교회가 완전히 갈라진지 약 900 년이 지난, 1961 년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요한 23 세 교황과 동방 정교회의 총대주교가 서로에 대한 파문을 철회하고, 극적인 화해.

현재, 동방 정교회 신자들과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서로의 교회에서 전례나 성사에 유효하게 참여 가능.